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인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 회비안내

####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원	

####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안도 타다오의 분노

### Tadao Ando's Anger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2000년대 중반 안도 타다오를 취재했던 한 교수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평소 거칠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안도 타다오가 직원들을 교수와 기자 앞에 세우고, 출신 대학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일본 건축을 망치는 패거리 문화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실례인 일본 문화에서 유학파나 도쿄대를 운운하며 흥분한 안도 타다오. 그리고 그는 비행기가 일본의 땅을 박차고 이륙하는 순간 “이래저래 답답한 일본의 줄 세우기 문화와 패거리 문화에서 해방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취재한 교수는 이 말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했다. 자칫 들어보면 안도 타다오가 일본을 싫어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 그는 가장 일본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의 분노는 어떤 연유에서일까?

문득 오래전 책에서 읽은 에피소드가 떠오른다. 안도 타다오는 1990년대 세계 무역 박람회의 일본관을 설계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일본 고위 관료가 안도 타다오의 출신을 묻고는 짜증을 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1990년의 안도 타다오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 아키텍트(Starchitect)였다. 아르마니나 베네통 등 글로벌 기업들, 디자이너들로부터 설계 의뢰를 받을 정도였고, 일본 정부도 안도 타다오를 국가 브랜드 홍보에 앞세울 정도로 이미 세계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안도 타다오에 대한 고정 관념, 주류 사회의 질투가 존재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결국 안도 타다오의 분노는 이런 편협함과 우월감을 가진 집단에 대한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흔히 이런 우월감은 소위 주류라는 조직에서 종종 나타난다. 어느 사회, 어느 분야,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는 1% 집단, 다시 말해 엘리트

집단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동전의 양면처럼, 조직 내 동질감을 키우고 사회를 지탱하고 끌고 간다는 사명감을 갖게 하는 반면, 지나칠 경우 기리끼리 문화, 자신들만 최고라는 배타성으로 인해 조직 간에 벽을 만들고, 대중과의 괴리를 불러온다. 안도 타다오는 편견이 없는 엘리트로



부터 주목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자생적 일본 모더니스트로 유명한 토고 무라노나 일본 건축의 2세대 리더였던 단계 겐조라는 인물이 안도 타다오를 주목하고 주변을 설득했다고 알려져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안도 타다오는 가난한 집 상동으로 태어나 학력은 고졸이 전부인 복서 출신이다. 오로지 타고난 감각과 노력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인생을 걸고 싶은 일인 '건축'에 매달렸다. 철저히 비주류였던 것이다. 그는 셀 수 없는 도전과 그로 인한 실패를 맞았다. 그런 까닭에 연전연패라는 책을 썼을 정도다. 어느 순간 이런 비주류 노력파를 일본의 엘리트 리더들이 인정해 준 것이다. 하지만 그가 성공하기까지 겪었을 갖은 수모와 감정적 소모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 사회 역시 일본 못지않은 군집 사회고, 집단 사회로서 소위 학력이나 유학 등을 통한 엘리트 의식이 존재한다. 어쩌면 일본보다 견고한 엘리트 의식으로 뚝뚝 뭉쳐 있을지 모르며, 필요 이상으로 권위적인 면도 있다. 그러다 보니 학력 세탁이라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기도 한다. 기득권 입장에서 보상 심리로 우월감에 도취한 나머지 자신들을 선민(選民)으로 여기며, 스스로의 흥결에는 너그러운 면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이며 비합리적인 행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주변을 둘러보자. 세계 1등 기업들이 속출하고, IT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다. 우리말로 부른 노래가 세계 최대 대중음악 시장에서 인정받고, 심지어 빌보드차트에서 1위를 한다. 일본 만화의 그림자였던 대한민국 만화는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술 분야는 세계적 작가들이 속출했다. 클래식 분야는 말할 것도 없다.

이젠 우리 건축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진짜 엘리트'는 열린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개인의 능력도 좋아야 하지만, 자신의 기준만 옳다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고, 균형을 잡아주는 이가 진짜 엘리트다. 일본의 토고 무라노나 단계 겐조, 그리고 치열함으로 무장한 안도 타다오를 보노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동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 미래를 그려내는 '진짜 엘리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절감한다.